

# “AI까지 1인 2역 ... 착한 대본에 끌렸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 홀로 그대' 주연 배우 윤현민

인공지능과 인간이 펼치는 삼각 로맨스  
허공을 향해 상상 연기도 넷플릭스 7일 공개



“나 홀로 그대” 스틸 이미지

“대본을 읽고 나서 꼭 해야겠다고, 안 하면 후회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읽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착한’ 대본이었거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 홀로 그대'의 주연 배우 윤현민(35)은 출연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로 '가슴 따뜻해지는 대본'을 꼽았다.

그는 드라마에서 같은 얼굴이지만 성격은 전혀 다른 두 캐릭터를 동시에 맡았다. 다정다감한 인공지능(AI) 홀로그램 '홀로'와 로봇보다 더 차가운 천재 개발자 '난도'를 같이 연기하며 첫 1인2역에 도전했다.

윤현민은 4일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넷플릭스 플랫폼과 1인 2역, 그 두 가지로도 마음에선 60% 정도 (출연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대본을 읽고 나서는 200%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인공지능 연기에 대해 윤현민은 “엄청난 압박감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대사도 딱딱하게 치고, 집에 있는 AI와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재료를 얻고 따라하기도 했다. 인간성 없어 보이는 감정과 말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홀로와 난도가 서로를 마주 보고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을 찍을 때를 언급하며 “허공에 대고 상상하며 쳐다보면서 연기를 하는 게 처음엔 너무 익숙지 않았

다”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너무 적응이 안 되고 홀로·난도 신을 찍으면 스트레스, 압박감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현민은 “찍으면서도 치유 받는 느낌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다. 어딘가에 의지해보고 싶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큰 메시지는 아니지만 사람의 체온을 높여줄 수 있는 드라마는 되지 않을까”라면서 “한가지 자부할 수 있는 건 넷플릭스 플랫폼에 이렇게 착한 드라마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난도의 감시 아래 베타테스터 자격으로 홀로와 함께하며 사랑에 빠지는 소년역의 고성희(30)는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나홀로”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라며 “희로애락을 늘 혼자 감내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했다.

대본을 집필한 류용재 작가는 “알파고 가 화제였을 때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의 외로움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이টে를 고민하게 됐다. 사이보그는 ‘불쾌한 꼴짜기’ 같은 문제가 아직 해소 안 된 것 같아서, 안경을 끼면 완벽한 상대가 보이는 설정을 고안하게 됐다”고 창작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7일 넷플릭스 공개. /연합뉴스



# ‘저널리즘 토크쇼 J’ 패널 바뀌 시즌2 복귀

손석춘·임자운·이상호 합류  
KBS 1TV 9일 방송



손석춘 교수

KBS 1TV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가 한달간 재정을마치고 오는 9일 새 시즌으로 돌아온다.

KBS는 4일 ‘저널리즘 토크쇼 J’ 시즌 2에 손석춘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임자운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이상호 KBS 아나운서가 합류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강남대 교수와 방송인 최옥은 시즌 1에 이어 시즌2에서도 자리를 지킨다. 제작진은 이번 시즌에서 단순히 비평

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뉴스 밖 목소리를 담으려 시도할 예정이다. 오는 9일 밤 9시 40분 첫 방송. /연합뉴스

# 강타·정유미, 열애설 인정 ... 팬에서 연인으로

그룹 에이치오티(H.O.T.) 멤버 강타(본명 안철현·41)와 MBC TV ‘검법남녀’ 시리즈 주인공 정유미(36)의 교제 사실이 4일 공개됐다.



강타

정유미

두 사람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에이스팩토리는 “강타와 정유미는 친한 선배배 관계로 지내오던 중 최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며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한차례 열애설이 보도됐으나 “친한 동료 사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정유미는 화창 시절 H.O.T.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다. 그는 2013년 한 예능에서 H.O.T.를 따라다녔다고 고백했다. /연합뉴스

# ‘신과함께’ 시리즈 중국서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가 중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

‘신과함께’ 투자 제작사인 텍스터 스튜디오는 중국 QC 미디어와 ‘신과함께’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제작 계약을 했다고 4일 밝혔다.

QC 미디어는 그동안 텍스터에 ‘신과함께’ IP(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요청을 꾸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니메이션은 본계약 체결 뒤 제작에 들어간다.

텍스터 측은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인다”면서 “‘신과함께’ 애니메이션이 중국서 제작돼 성공적으로 개봉한다면 한·중 콘텐츠 합작 비즈니스 모델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의 연평균 박스오피스는 2013~2018년 5년간 전체 박스오피스 약 10%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는 18.91%까지 치솟았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내주세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역사저널 그날(재) 55 UHD 숨터(재)	00 포레스트(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BBB삼총사의 모험 55 뽀뽀부 모야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고씹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우리말 겨우기(재)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4]	00 시사건건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00 두 번은 없다(재)	00 특집 정재영의 이수IN(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시노스톤 프리킥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최중우를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미니다Q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환상의 타이밍 다시보기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10' 55 더 라이브	00 포레스트	05 실화탐사대	00 이동욱은 토코가 하고 싶어서
[11]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개그 콘서트(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EBS 다크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명 유치원	14:45 몰랑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30 아웅명명 귀여워2(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놀라운 아시아, 미안마 필리핀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서>
09:30 원더볼즈	15:55 엄마 까투리(재)	21:30 한국기행
09:40 아웅명명 귀여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겨울, 고립무원 3부 산골 오지, 내 탓에 산다>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1:50 EBS 다크프라임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명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2:45 극한직업
10:50 최고의 요리결	17:00 EBS 뉴스	23:35 EBS 초대석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5일(음 1월 12일 戊寅) ☎ 010-9790-8237

**子** 36년생 전혀 남득하기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니라. 48년생 급격 조용히 조처하는 것이 상책이다. 60년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뒤집혀서 오히려 반대로 갈 수다. 84년생 상호 교체한다면 발전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96년생 대응하기에 용이한 상국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41, 65

**丑** 37년생 지금으로써는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더 나아가야 할 길목이다. 49년생 재조명하게 되리라. 61년생 표현해 시간다면 경색 국면으로 이어질게 뻔하다. 73년생 전혀 단 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85년생 진용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97년생 복잡다단한 국상이니 부지런히 행적야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78

**寅** 38년생 중요한 일이므로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50년생 진땀을 빼면서 애를 써야만 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62년생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보자. 74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니 빨리 청산 하자. 86년생 원리 원칙대로 대처해야만 한다. 98년생 기막히게 좋은 운세이니 주저하지 말고 분개도로 진입토록 하라. 행운의 숫자 : 30, 84

**卯** 39년생 발전적인 이동수가 보인다. 51년생 지금 철회하는 것이 현명하다. 63년생 궁극적인 목표에 이른다. 75년생 급작스런 변화가 보인다. 87년생 진행되는 현대의 양상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99년생 불편한 입장에 서게 되는 꼴이다. 행운의 숫자 : 36, 56

**辰** 40년생 준비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돌아가는니라. 52년생 확신을 갖고 한 방 날려도 될 시기이니라. 64년생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맹점이 있다. 76년생 획기적인 발전성이 있어 보이니 수용한다면 유익하리라. 88년생 중용을 유지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00년생 원칙에 따라서 똑바로 체계를 세울 때이다. 행운의 숫자 : 28, 99

**巳** 41년생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의 교류가 있을 것이다. 53년생 믿고 추진해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겠다. 65년생 중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으리라. 77년생 특별한 형태로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89년생 무리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중하다. 01년생 공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행운의 숫자 : 37, 80

**午** 42년생 인식하는 변화의 폭이 크다. 54년생 취약한 곳은 철저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66년생 약간 변할 수도 있으나 대동소이 하노라. 78년생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속고 해 붙인다. 90년생 처음에는 조금씩이겠지만 점차 확대 일로에 놓인다. 02년생 미리 서둘러야한다. 행운의 숫자 : 27, 69

**未** 31년생 빈틈이 없어야만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43년생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자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55년생 원칙과 예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책이 아쉽다. 67년생 정후를 무시한다면 위태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79년생 핵심 가치인가의 여부가 관건이다. 91년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발전하는 국면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39, 77

**申** 32년생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해 보자. 44년생 모면 하려고만 한다면 흔들릴 것이니 근본 원인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 56년생 판국은 원래로 바뀌지 않는다. 68년생 암초가 있는 급류로 휩쓸려 가는 형상이다. 80년생 마주 대하고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92년생 필수적인 것들을 간과하면 오히려 손실을 입으리라. 행운의 숫자 : 40, 74

**酉** 33년생 상호간의 조화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45년생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느니라. 57년생 별의별 방법을 다 써 봐도 헛수고일 뿐이다. 69년생 표출하지 말고 흡입해야 할 시기이니라. 81년생 가서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라. 93년생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급히 터지리라. 행운의 숫자 : 46, 82

**戌** 34년생 최고의 대안은 경험과 중론 속에서 나오는 법이다. 46년생 정확하게 실행해야 역활을 제대로 하게 된다. 58년생 거의 모든 재앙은 무리함에서 비롯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자. 70년생 기본적인 본분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82년생 총체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94년생 거주장소라면 버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6, 58

**亥** 35년생 보이는 징후를 무시한다면 위험에 직면한다. 47년생 현하의 국면에 순응함이 유익하다. 59년생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시켜 보자. 71년생 정성을 들이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83년생 여러 가지 근거들을 확보해 두라. 95년생 힘차게 날아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6, 76